성육신

(히브리서 2:14-18)

주님이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응답 받으면 끝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자,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도 응답 받는 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귀한 말씀이면서 충격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살길이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 답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탄의 머리를 깨므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면 해방과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응답이 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운동을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날이 올 것이며, 말씀 운동을 하면 이 약속이 오지 않을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 운동을 하면 인생에 실패도 없습니다. 문제에 잡혀 내 인생이 깨어지거나 내가 저주를 받아 망한 인생이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답은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약속된 권세가 이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씀 운동이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예배 통해 받은 언약으로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됩니다.

요셉도 노예로 잡혀갔으나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더욱 언약을 잡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승리하고 성공했습니다.

말씀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은 하루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언약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히 말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명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말씀 드린 몇 단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열리고, 답이 나오면 말씀 받게 되고, 그 인생은 말씀의 언약대로 될 것입니다. 답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답은 말씀입니다.

1.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세 전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재림해 오실 것이고, 그때 심판주 되시고, 모든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주님이 혈과 육을 가지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육신하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육신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 한평생 마귀에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려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마땅히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은 대신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성육신하신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시험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죽이시는 것. 언약이 되고, 내 안에서 이것이 누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뱀 대가리가 깨지고, 우리 인생에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말한 복음의 내용과 같습니다(창 3:15).

두 번째는 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모든 해방의 길이고,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 죽는다'고 하셨으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아시고, 어떻게 건지시는지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나에게로 오라' 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시험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지고, 내 안에 결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때 내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라 노력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이루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응답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응답을 받는 답이 있다면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잘 모를 때,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는 내용도 있고, 방향도 있으며, 잡아야 하는 언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소원을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 나가는 중에 우리가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자세는 하나님 눈에 아주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지 말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으라는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누리며, 한 단어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 조건은 '복음의 개인화' 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5가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게 언약이 되고, 마음에 담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의 수준이 나의 인생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 즉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복하고, 역전됩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 역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중간에 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정해 놓으셨으며,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말씀만 전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깊어지다가도 어려움 오면 흔들리고, 깊어졌다가 얕아졌다가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진짜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복음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창세 전에 정해놓고,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운동은 시대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강단은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누리는 것,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인생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전부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답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정말 답이 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른 데로 답을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근본적으로 마음에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집중 훈련도 하고, 예배 체제도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지속적으로 응답 받고, 땅끝까지 가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